EMERiCs 이슈분석

경제 | 2017-250

싱가포르 | 동남아시아

중국 일대일로에서의 싱가포르의 역할

Linda Low School of Business,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ssociate Professor

주요내용

-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의 야심 찬 계획의 일부로, 지난 5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회담에서 57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냄.
- 한편 이 일대일로가 싱가포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와 중국은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테오 친 힌 부총리는 싱가포르와 중국 간 공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연설을 통해 강조한 바 있음.
- 싱가포르와 아세안 국가들은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일대일로에 대해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

1. 이슈 현황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의 야심찬 계획의 일부로, 지난 5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회담에서 57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냄. 한편 이 일대일로가 싱가포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일대일로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야심 찬 계획의 일부이자 그의 유산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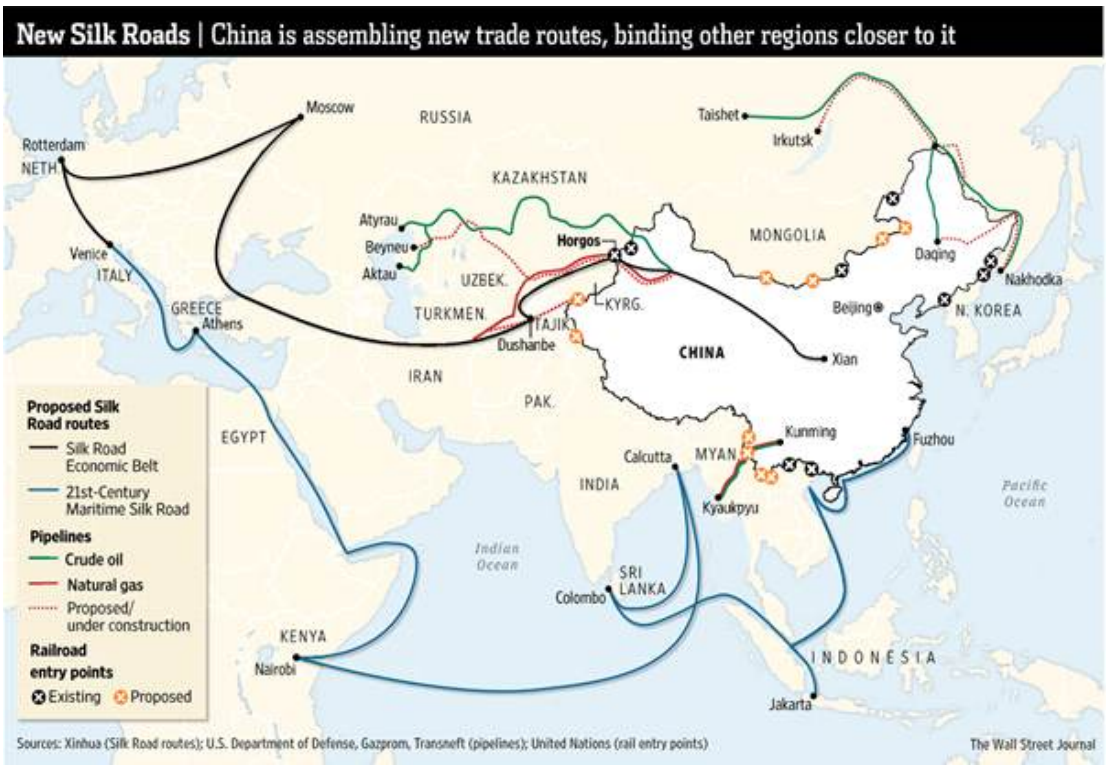
- 서구의 정복이나 침략과 달리 일대일로는 중국의 평화적인 등장을 반영한 경제적 식민지화 계획임.
- 아래 표를 통하여 우리는 일대일로와 연관된 국가들을 살펴볼 수 있음.

표 1.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 리스트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CIS	중동부유럽
몽골	이란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폴란드
싱가포르	이라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터키	방글라데시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라트비아
미얀마	요르단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체코
태국	레바논	몰디브		아르메니아	슬로바키아
라오스	이스라엘	네팔		몰도바	헝가리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부탄			슬로베니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크로아티아
브루나이	예멘				마케도니아
필리핀	오만				몬테네그로
	UAE				세르비아
	카타르				알바니아
	쿠웨이트				루마니아
	바레인				불가리아
	그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이집트				

자료원 : Opportunities of One Belt One Road in Afutop Industrial(http://www.afutop.com/Information/2017/0510/13.html)

그림 1. 신 실크로드와 옛 실크로드의 비교



자료원 : Xinhua (Silk Road Routes); U.S. Department of Defense, Gazprom, Transneft (pipelines); United Nations(rail entry points)

□ 아래 표는 2013년 이후 일대일로에 대한 발언들을 정리한 것임.

표 2. 일대일로 관련 발언

일자	행사	주요 인물	내용
9월 13일	카자흐스탄 방문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 대해 언급함.
9월 13일	인도네시아 방문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발표함.
6월 14일	중국-아랍국가 협력 포럼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1+2+3 협력 프레임을 제안함. "1"은 근간으로써의 에너지 협력, "2"는 인프라 건설과 국제 무역 향상, "3"은 핵에너지, 항공우주 및 위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의미함.
7월 14일	관보 기사	상무부 장관	일대일로 전략의 발전과 실크로드 국가들과의 비즈니스 및 무역 협력 강화
10월 14일	중국 경제사회 컨퍼런스	국가개발개혁위원회장	일대일로 건설이 8개 분야에서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언급. 8개 분야는 인프라 건설, 비즈니스 및 무역 협력, 산업 투자 기회 확대, 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문화 교류, 환경 협력, 해상 협력임.
10월 14일	10회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리커창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인프라 건설과 지역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일대일로 전략에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함.
10월 14일	일대일로 계획	국무원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이끄는 실크로드 계획이 중국 국무원에 제출됨.
11월 14일	중앙 금융 지도자 회담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모두가 일대일로에 참석할 것을 요구함.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외교부, 중국인민은행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및 실크로드 기금을 마련하는 계획서를 제출함.
12월 14일	신련 다과회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성과를 요약하는 한편 일대일로 전략 실현에 집중할 것을 요청함.
11월 14일	실크로드 펀드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실크로드 기금에 400억 달러(약 45조 원)을 투입할 것을 발표함.
3월 15일	보아오 포럼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3월 15일	보아오 포럼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일대일로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자료원 : CLSA

□ 2017년 5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회담까지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에 대한 57개국의 동의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냄.

- 하지만 57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정부 정상은 동의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님.
- 리쉔룽(Lee Hsei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29개국 지도자 중 초대받지 못함.
- 싱가포르는 2일자 회담에 참석한 28개국 중 하나였음.[1)]

1) 해당 회담에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 태국 대표단, 브루나이 대표단을 비롯한 기타 아세안 7개국 대표단이

- 또한 2017년 5월 8일 정부가 발표한 〈홍콩 : 실크로드의 주요 연결점〉이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중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일대일로에 관한 싱가포르의 역할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원인과 분석

▶ 싱가포르와 중국은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테오 친 힌 부총리는 싱가포르와 중국 간 공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연설을 통해 강조한 바 있음.

□ 리셴룽 총리의 부재가 오히려 행운이었던 것은 해당 논의가 중국-싱가포르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임.
- 2016년 양국은 2차례 행사에서 긴장 관계가 조성된 바 있음.
- 지난 7월 헤이그 중재 법원이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인정할 역사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함.
- 이에 중국은 해당 판결을 무시한 바 있음.

□ 2016년 11월에는 9대의 싱가포르 군용차가 홍콩 세관에 압류되었다가 2017년 1월에 송환됨.
- 해당 사건은 싱가포르 군대가 대만에서 훈련 후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함.
- 이는 싱가포르와 대만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안이 반영된 행위임.
- 중국은 싱가포르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명함.
- 싱가포르 행정부는 호주 등과 같이 대만과의 오랜 외교적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홍콩과 런던과 더불어 인민폐를 세탁하는 곳으로, 이에 매우 둔감함.
- 중국이 일대일로와 자국 내 인프라 개발에 30~40억 달러(약 3조 4,005억~4조 5,340억 원)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지출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만약 일대일로 계획이 추진된다면, 싱가포르 건설청(BC)이 이끄는 톈진의 에코시티와 충칭에 〈연결 이니셔티브(Connectivity Initiative)〉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닐 것임.
- 리더십 포럼이나 사회 경영 포럼 등 다른 싱가포르의 주요 플랫폼도 중국 우선 개발과제를 지원함.

□ 2015년 시진핑 주석의 싱가포르 방문은 양국 25년 외교 관계에서 역사적인 사건임.
- 리셴룽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임이므로 중국에 대한 답방(答訪)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참석함.

- 2016년 9월 아시아연구소(EAI)의 20주년 기념식에서의 테오 친 힌(Teo Chee Hean) 부총리의 연설은 의미가 있었음.
- 아시아연구소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싱가포르 경제전문가인 고 켕 스위(Goh Keng Swee) 박사가 설립으며, 그의 쑤저우(Suzhou) 산업 프로젝트는 성공, 실패, 교훈의 사례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

□ 테오 친 힌 부총리는 연설에서 3가지 희망과 함께 상황에 따른 양국 간 이해의 차이보다 공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함.
- 첫 번째는 중국이 안정적이고, 번영하여야 하며, 보다 지역적, 국제적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임.
- 두 번째는 중국이 평화, 안정, 성장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 규칙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임.
- 세 번째는 중국이 사회적인 전환 과정에서 유구한 역사와 깊이 있는 역사를 통하여 현대성과의 조화를 마련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경제-사회-정치적 선순환이 매우 중요함.
- 한편 중국의 공산주의가 아직 남아있어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Deng Xiaoping) 주석 때처럼 중국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 싱가포르와 같은 성공한 소국(小國)과 달리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국으로, 역동적인 서사를 갖춘, 계속 발전 중인 국가임.
- 모든 사람들은 중국이 이 서사의 주인공인 반면, 싱가포르는 조연이며 적절한 역할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 전망과 시사점

싱가포르와 아세안 국가들은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일대일로에 대해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 현재 일대일로가 실현되기에는 요원해 보이지만, 그 전에 이루어질 면대면 접촉이 가장 큰 관건임.

□ 2017년 7월 대만-중국(Sino-Chinese) 간 지적재산권(IPR)과 관련된 합의가 체결되었으며, 충칭-아세안 간 육상-철도 연결이 활성화됨.
- 일대일로에서 중국은 홍콩을 가장 가까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김.
- 홍콩은 싱가포르와 은행, 금융, 건설, 프로젝트 관리 등에서 경쟁국임.
- 싱가포르에 대한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함.
- 홍콩은 현재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국의 신뢰를 받고 있음.

□ 유로존 침체와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와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의 서빅 만(Subic Vay)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더욱 성장할 것임.
- EU와 미국, 일본 중 일대일로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를 표명한 곳은 없음.
- 싱가포르와 아세안 국가들은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일대일로에 대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

□ 비록 중국의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본과 아세안과의 북중국해, 남중국해 문제로 자존심을 잃게 되더라도,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을 이어갈 것임.
-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승리가 경제적 승리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음.
- 싱가포르는 세계의 GDP 1위와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일대일로 상의 경제적인 역할에 대해 주의 깊게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GDP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으나, 고령화된 13억 인구의 삶의 질과 1인당 GDP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어려움.
-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중국과 긴밀함. 중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납득할 만 함.
-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먼저 아세안의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맺는 일에 착수하여야 함.

□ 중국은 아세안의 분열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임.
- 싱가포르는 중국의 우호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를 잃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하여야 함.
- 싱가포르-미얀마 관계는 양국 모두 영국의 식민지로 우호적인 편임.
- 이러한 양자 간 동반자 관계가 아세안-중국 동반자 관계로 이어질 것임.
- 일대일로가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면대면 접촉이 관건임.

EMERiCs

참고문헌
- Opportunities of One Belt One Road in Afutop Industrial(http://www.afutop.com/Information/2017/0510/13.html)
- Xinhua (Silk Road Routes); U.S. Department of Defense, Gazprom, Transneft (pipelines); United Nations (rail entry points)
- CLSA(https://www.clsa.com/)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